



2022년 5월 15일(제1088호) 부활 제5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봉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찬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5주일임과 동시에 ‘스승의 날’입니다. 지난 주일에 어버이날을 함께 지냈던 것을 기억하면서 두 주 연속으로 뜻깊은 주일을 보내는 듯합니다.

몸과 마음이 쑥쑥 커갔던 사춘기 학창 시절과 지식이 영글던 대학교 시절까지, 돌이켜보면 우리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 선생님이 계시곤 합니다. 부활 시기의 기쁨을 누림과 동시에 각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소중한 은사님께 감사와 안부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따뜻한 주일 보내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체계는 기억에 남는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은사님께서는 급우들의 학교생활이 불편하지는 않은지, 교복과 가방은 빨고 다니는지, 불량식품이나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고 다니지는 않은지 노상 걱정해주시면서 사춘기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잔소리(?)를 아끼지 않고 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유독 왈가닥 학생이 많았던 반이었지만 누구 하나 포기하거나 잊지 않으시고 한 명 한 명 깊은 관심을 쏟아주신 덕택에 모두가 한 해를 잘 보내고 다음 학년으로 진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좋은 은사님들은 보화वाद 같은 소중한 가치와 가르침을 주셨던 분들입니다. 현세의 선생님의 가르침에 값어치 없을진대 영적인 스승이자 우리의 진정한 왕이

“스승님”

신 그리스도께 배우게 되는 수많은 가르침과 계명의 무게는 감히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 복음 13장 1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파견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든든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부활 제5주일 요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 장면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현세의 스승님께 배운 가르침에 따라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 것과 같이 천상의 스승님이신 예수님께 지고한 가르침과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여 하느님 나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군종교구민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동강(크리스토폴) 신부
충장(제31보병사단) 상당 주임

제 1 특 시 회 답 송 제 2 특 시 복음 환호송

사도 14,21ㄴ-27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묵시 21,1-5ㄴ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요한 13,31-33 ㄱ,34-35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복 음 영 성 제 송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스무 번째 시한

그리고 마침내 그는 제게 배교를 명하였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가없다는 표로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와 같이 붙잡힌 두 교우는 잔인한 고문에 못 이겨 제가 서울에서 살던 집을 일러주었고, 또 주교님의 복사인 이(재의) 토마스와 그의 동생 (이신규) 마태오와 그밖의 몇몇 교우들을 고발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제가 중국 배들과 연락한 사실과 그중 한 배에 서한들을 전달한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즉시 포졸 한 부대가 중국 배들이 있는 쪽으로 보내져서 그 편지들을 감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를 아주 엄중하게 감시하였습니다. 우리를 각기 만 감옥에 가두어 두고는 4명의 군인들이 밤낮으로 우리를 지켰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었고 목에는 칼이 썩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허리들은 하나의 긴 줄로 서로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세 사람은 필요한 배설을 하러 갈 때마다 그 줄 끝을 붙들어야 하였습니다. 제가 겪어야 했던 괴로움이 어떠하였을지는 주교님의 상상에 맡깁니다. 제가 마카오에서 병을 앓았을 때 치료받은 흡각(吸角) 때문에 제 가슴에 생긴 일곱 상처 자국을 보고 군인들은 복두칠성이라고 하며 갖은 희롱으로 저를 놀리며 좋아들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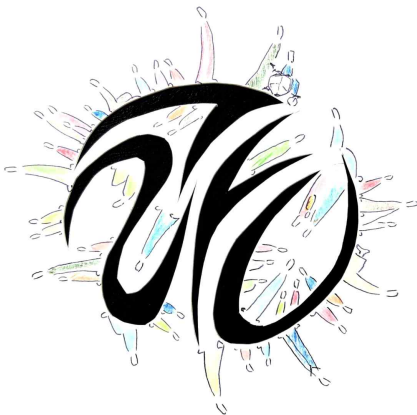
임금은 우리의 체포 소식에 접하자마자 우리를 서울로 압송하기 위해 포졸들을 보냈습니다. 임금에게는 저를 중국인이라고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길을 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감옥에서처럼 포승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둑이나 중죄인들처럼 우리의 팔을 홍사(紅絲)로 졸라매고, 또 머리를 거무스름한 천 자루로 씌웠습니다. 길을 가면서 우리는 큰 피로를 견디어 내야 하였습니다. 군중이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저는 외국인으로 통하였으므로 제가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사람들이 나무나 지붕 위에 올라들 갔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록	상
---	---	---	---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그 사랑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에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웃는 사람들

잡히지 않는
그 사랑에
모두를 걸고
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입니다.

상화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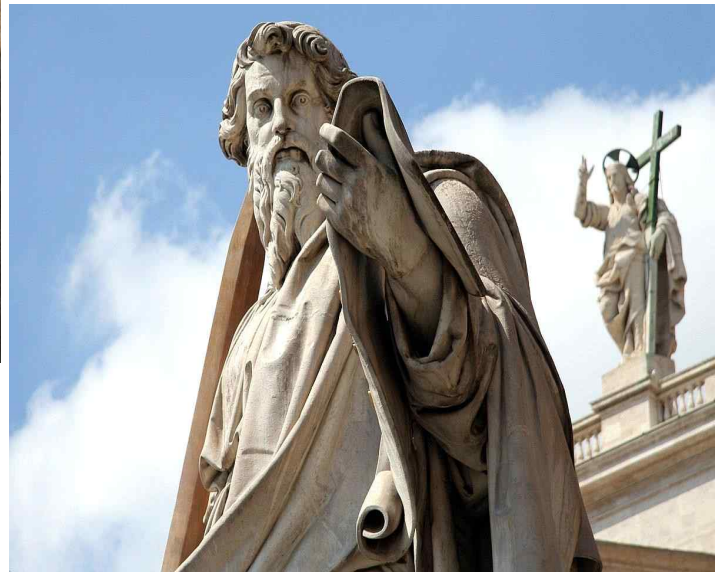
바오로 성인



본 작품은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바오로 성인을 묘사한 것으로, 바티칸 광장에 있다. 15세기에 제작된 옛 작품을 대체해서 19세기에 제작된 것이며, 받침대 포함 높이가 5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조각상이다.

바오로 성인은 한 손에는 2.79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칼을, 한 손에는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의 한 구절(4장 13절)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이 적힌 두루마리를 들고, 강렬한 눈빛과 자세를 취하고 계신다. 심지어 성인이 입고 있는 옷의 주름에서마저도 힘과 위엄이 느껴진다.

김은혜(앨리스넷)



이디모 티롤리니(1788년 ~ 1868년)
1823년경 작
높이 5미터(받침대 포함), 대리석
바티칸, 로마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부활 제5주일: 정성 빅재우 신부

◆ 교구장 동정

- 주교좌 국군중앙 성당 미사
때: 5월 15일(주일)

- 부산군중후원회 50주년 감사미사
때·곳: 5월 21일(토) 14:00, 주교좌 남천 성당

- 주교 현장 체험
때·곳: 5월 17일(화), 충남 서천 국립 생태원

“상제상시로 기뻐하는 삶” -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요한 6,57)